

전자업계 경기하강으로 난관봉착

미국LCD-TV 작년 4분기 마이너스 성장

북미 평판TV 시장이 지난 4분기에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신장했다. 디스플레이서치 자료에 따르면 미국 LCD TV 시장은 지난 분기 지난해(890만대)에 비해 20만대 가량 줄어든 870만대가 팔리는 데 그쳤다. 미국 TV시장 규모가 역신장하기는 LCD TV가 나온 2000년 이후 처음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미국 TV시장이 지난 분기에 경기 불황의 직 격탄을 맞으면서 올해 전체 평판TV 시장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IDC·디스플레이서치 등 주요 시장 조사업체는 지난해 말에 내놓은 시장 예측 보고서를 통해 올해 평판TV 시장이 금액면에서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한다고 시장 규모를 하향 조정했다.

4분기 시장조사 자료에 따르면 LCD TV 시장은 위축됐지만 PDP 시장은 선전했다. PDP 시장은 130만대로 최고 판매 기록을 세웠다. 이는 분기 기준으로 28%, 연간 기준으로 10% 성장한 수치다. 그러나 가격은 추락했다. 지난 분기에 50인치 PDP 제품 처음으로 1000달러 이하로 떨어졌다.

LCD에 이어 PDP TV까지 가격 경쟁이 번지면서 올해 PDP 가격 폭이 전체 평판TV 시장의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또 지난 분기에 유통업체의 공격적인 가격 하락에 힘입어 40인치 이상 대형 LCD 제품 비중은 증가했다. 지난해 3분기 30%에서 4분기 37%까지 올라갔다.

업체별로는 삼성전자가 4분기 북미 시장에서 수량기준으로 20.4% 시장 점유율로 1위를 차지했다. 삼성이 북미 시장에서 20%를 돌파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어 소니 14.2%, 비지오 12.3%, LG전자 8.1%, 도시바 7.9% 순으로 나타났다.

일본 전자제품가격 하락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부진 현상이 심화되면서 일본에서 전자제품의 판매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졌다. 가격 하락은 실물 경제 위기가 본격화한 지난해 11월 이후 1월까지 집중돼 3월 결산인 일본 전자업체의 실적에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일본 시장조사업체 BCN의 전자제품 판매가격 추이 분석에 따르면 LCD TV, PDP TV, 잉크젯프린터, 콤팩트디지털카메라의 가격이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동안 급격히 하락했다. PDP TV 가격은 이 기간에 무려 19.2%나 떨어졌으며, 디지털카메라와 LCD TV의 가격은 각각 15.5%, 15.0%씩 하락했다.

일본 LCD TV 업계는 일반적으로 비수기인 1월에 판매 진작을 위해 가격을 내렸지만, 이번에는 지난해 말 인하를 시작하면서 인하폭이 갈수록 커지는 양상이다. 경제산업성 통계에 따르면 LCD TV 재고 역시 전년 동월 대비 98.2%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재고소진을 위한 각 업체의 가격인하 움직임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BCN은 또 지난해 1월 초부터 올 1월 말까지 13개월간 가격이 가장 많이 하락한 제품은 노트북PC였다고 밝혔다. 노트북PC의 올 1월 평균 판매가격은 8만9200엔으로, 이 기간 28.0%가 하락했다. 노트북PC 판매가격이 9만엔 밑으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상반기 올림픽 특수로 판매가 급증했던 LCD TV의 판매가격도 13개월 사이 13.0%가 하락한 9만7700엔으로 떨어졌다. LCD TV가 10만엔 미만으로 하락한 것도 처음이다. PDP TV는 15.6% 하락한 14만8900엔으로 나타났다.

일본 전자업체들, 사업 구조조정

일본의 대표 전자업체들이 엔화상승과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유례없는 압박을 받으면서 TV·PC·가전 등 주요 사업 부문의 철수 및 공장 폐쇄를 단행했다. 생존을 위해 '돈 안 되는' 사업과 설비를 과감히 포기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PC업체인 NEC는 올 상반기까지 유럽 PC 시장에서 철수할 계획이다. 외신은 NEC가 손실 줄이기 전략의 일환으로 프랑스의 NEC컴퓨터SAS에서의 기업용 PC 생산을 곧 중단하고 일본 내 PC사업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2만여명의 직원을 정리해고할 계획인데 이중 60%는 해외 인력이다.

일본 전자업체 파이어니어가 TV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겠다고 발표했다. 이 회사는 당초 평판TV용 PDP 생산을 중단하고 파나소닉으로부터 PDP를 제공받아 TV를 생산할 계획이었지만 급격한 불황의 여파로 아예 전면 철수를 선택했다. 파이어니어의 TV 사업 부문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오는 3월 마감되는 파이어니어의 2008년 회계연도 순손실 규모는 총 1000억엔(1조5000억엔)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회사는 또 DVD플레이어사업도 샤프와 공동 설립할 회사에 이관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소니·파나소닉도 수익성이 떨어지는 제조 설비를 줄줄이 정리하기로 했다. 소니는 지난해 북미 공장의 문을 닫은 데 이어 최근 일본 내 주력 제조 기반인 아이치현의 이치노미야 TV 공장 폐쇄까지 결정, 충격을 던졌다. 파나소닉도 전 세계 제조 거점의 20%를 정리한다는 방침 아래 3월 말까지 차량용 TV 모니터를 생산하는 후지사와 공장 등 일본 내 13개 공장을 포함, 총 27개 공장의 운영을 중단한다.

전자업계 수출 10% 이상 감소 예상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대형 전자 업체들이 올해 수출이 1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며 정부에 지원대책을 요청했다. 2월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반도체·디스플레이·가전업체와 정부 간 간담회에서 대형 전자업체들은 올해 수출이 수요 감소와 단가 하락의 이중고를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당분간 수출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는 LCD TV의 경우 물량으로는 20% 성장이 예상되지만 단가 하락으로 금액은 오히려 20%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삼성전자는 올해 휴대전화는 시장 성장에 힘입어 수출이 7% 가량 증가

하지만 전체 수출은 작년보다 10%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LG전자는 지난달 미국지역의 매출이 영업계획에 30% 미달하는 등 전체적으로 10% 이상 미달했다고 정부 측에 밝혔다.

업체들은 수출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정부 측에 요청했다. LG전자는 10억달러 규모의 수출보험 한도 증액을 요청하면서 “이를 통해 앞으로 80억달러 규모의 수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일렉트로닉스는 워크아웃 기업이라는 인식 때문에 해외 현지법인이 국내로부터 부품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수출보험 심사를 긍정적으로 해줄 것을 요청했다.

LG디스플레이는 중소기업과의 거래에서 현금 결제 등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감시를 완화 또는 유보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중소 장비업체들은 대부분 일감 부족 문제를 호소하며 일정 기간만이라도 특정 기업이 아니라 여러 기업에 연구·개발(R&D) 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줄 것 등을 요청했다.

정부는 LG전자 수출보험 한도 증액 요청에 대해서는 내주 5억5000만달러의 증액을 승인하도록 하고 워크아웃 기업의 현지법인에 대한 수출보험 심사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국내 디스플레이 선전 전망

대신증권은 2월에도 대만업체의 fab 가동률은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어 대만업체의 가동률 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불황 속에서 한국업체의 시장지배력은 오히려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디스플레이서치에 따르면 대만 AUO의 2월 가동률은 6G fab이 50%에서 70%까지 상승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fab은 모두 40%이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반면 한국업체의 가동률은 정상수준을

회복하고 있어 LG디스플레이의 전체 fab가동률이 85%를 넘어섰고, 삼성전자는 모니터패널과 32" TV패널을 생산하는 7G fab과 8G fab을 중심으로 가동률이 상승하고 있다.

특정제품(16:9 모니터패널, 32"이하 중소형 TV패널)의 수요반등에도 불구하고, 대만업체들이 가동률을 공격적으로 상승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리한 환율에 따른 가격경쟁력 열위, 부품조달을 포함한 supply chain 정상화 지연, 재고비용 최소화와 현금확보를 위한 보수적인 영업전략에 기인한다며 취약한 고객기반과 재무구조에 가격경쟁력까지 열위에 위치함에 따라 대만업체가 한국업체와 경쟁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되고, 대만업체의 보수적인 fab 운영정책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만업체의 가동률 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불황 속에서 한국업체의 시장지배력은 오히려 확대될 것이라며 특히 LG디스플레이는 6G fab을 중심으로 불황에 적합한 fab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고, 수요가 견조한 중국 로컬업체에 대한 TV패널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어 가동률과 점유율에서 경쟁업체를 지속적으로 압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올해 전세계 LCD 패널 시장에서 삼성전자·LG디스플레이 등 국내 업체들의 점유율이 절반에 육박하면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할 전망이다. 그러나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본격화한 탓에 올해 LCD 패널 시장은 역성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디스플레이서치에 따르면 올해 TV·모니터·노트북 등 대형 LCD 패널 시장에서 삼성전자·LG디스플레이 등 한국 업체들의 매출액 기준 점유율은 49.9%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007년

43.7%에서 지난해에는 46.1%로 올라선데 이어, 올해는 절반 가까운 점유율을 차지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LCD 패널 가격 급락과 수요 침체속에서 세계 시장 1, 2위인 삼성전자·LG디스플레이가 양산 경쟁력을 앞세워 시장 지배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올해 매출액 기준으로 전세계 대형 LCD 패널 시장은 600억달러 규모에 그쳐 지난해 720억 달러보다 무려 16%나 역성장할 것으로 관측됐다. 출하량은 지난해 4억3915만대에 비해 14% 신장된 5억여대, 출하면적은 6476만㎡에서 18% 늘어난 7630만㎡ 규모에 각각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LCD 패널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물량은 늘어도 매출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만 LCD 구조조정

대만 LCD 제조사들이 지난해 3분기에 이어 4분기 적자폭을 크게 늘리며 경영악화 일로를 달리고 있다. 이들은 올 1분기에도 적자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상황이 쉽게 개선되지 않는다면 대만 D램 산업처럼 인수합병 등 구조조정 국면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AU옵토일렉트로닉스(AUO), 치메이옵토일렉트로닉스(CMO), 청화픽처튜브스(CPT) 등 대만 주요 LCD 3사의 지난 4분기 영업손실과 순손실은 각각 2조3000억원, 2조8500억원에 달했다. 대만 선두 업체인 AUO는 지난해 3분기 영업이익률 2.6%로 소폭의 흑자를 냈지만 4분기들어 매출 2조3890억원(이하 연결기준, 지난해말 환율기준)에 1조136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영업손실률 47.6%로 적자전환했다. CMO는 3분기 영업이익자 1300억원, 영업손실률 4.2%에서 4분기에는 매출 1조7450억

원에 영업이익자 7860억원, 영업손실률 45%로 적자폭을 크게 키웠다. CPT는 3분기 영업이익자 2010억원, 영업손실률 20.4%에서 4분기 매출 6620억원에 영업이익자 4190억원, 영업손실률 63.3%를 기록하며 심각한 적자 상황에 빠졌다.

이에 반해 세계 LCD 1, 2위사인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는 지난 4분기 상대적으로 적자폭이 적었다. 삼성전자 LCD사업부는 4분기 영업이익자 2300억원, 영업손실률 6.5%를 기록했고, LG디스플레이는 영업이익자 2880억원, 영업손실률 6.9% 수준이었다.

금년 1월 들어 LCD 수요와 가격이 다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튼튼한 수요 기반을 갖추지 못한 대만 LCD 업계는 1분기에도 적자가 불가피하다. 또 시장 상황이 어려울수록 국내 상위권 업체들과 대만 후발업체들과의 시장 점유율 격차는 더 벌어져 악순환의 전철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LCD 시장이 급속히 나빠진 지난 4분기 대만 업체들은 3~4%포인트 가량 점유율이 하락한 반면 국내 업체들은 점유율을 더 높였다.

이처럼 대만 LCD업계의 실적악화가 커지면서 업체간 합병에 대한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대만 현지언론과 관련 업계는 AUO 또는 CMO와 중국 패널업체인 이노룩스간 합병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AUO와 CMO 등은 경영악화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대규모 무급휴가를 실시하고, 일부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하는 한편 같은 세대의 LCD 라인을 한 곳으로 모으는 라인 조정작업을 실시하는 등 자구책을 진행하고 있으나, 심각해진다면 중국 정부가 나서 대만 LCD라인의 대거 중국이전도 있을 수 있다.